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

Wellhausen [출처 비평], Gunkel [형식 비평]

검토: Wellhausen의 다큐멘터리 소스 가설 [JEDP]

우리는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과 그의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이 구약성서의 역사적 자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그의 다큐멘터리 소스 가설, 즉 JEDP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J 또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선호하는 출처가 가장 이른 것(기원전 약 850년), E 또는 엘로힘 출처(기원전 약 750년) P 또는 Priestly 문서가 최신(기원전 약 450년)이라는 노선을 거의 따릅니다. D 또는 신명기 소스는 요시아 시대와 율법서를 발견한 시기인 기원전 621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날짜인 기원전 721년은 북왕국이 앗시리아에 멸망한 해이고, 기원전 586년은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해이며,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두 가지 중요한 날짜입니다. 물론 기원전 1400년경의 출애굽 시기와 기원전 1000년경의 다윗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Wellhausen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시간표에 따라 오경을 구성하는 자료는 J에서 시작하여 E, D, 마지막으로 P라는 일련의 편집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되었습니다. 재료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재료의 모자이크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초기 시대에 기인한 많은 개념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당시 존재했던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출처가 작성된 후기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것으로 생각되는 할레, 언약, 선택과 같은 사상은 사실상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삽입된 후기 사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P의 글 속에 존재했고, 이전 시대로 다시 투영되어 이전 역사를 완전히 왜곡했다. 나는 몇 가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유일신교로

시간이 끝날 무렵 누군가가 유일신교에 대해 질문했고 나는 그가 종교가 다신교(여러 신)에서 단일 신교(우리의 신이 더 낫다), 유일신교(한 신)로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일반적으로 종교의 진화적 발전과 일치합니다.

자연적 종교부터 예언적 종교, 제사장 종교까지

그가 말한 또 다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JE 자료에 반영된 원시 예배인 "자연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식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D 소스에 반영된 윤리 의식을 발전시킨 예언 종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포로 이후 P 소스에 기인한 외부 의식 의식을 갖춘 사제 종교입니다. 따라서 자연 종교, 예언 종교, 제사장 종교라는 또 다른 발전적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경의 본문 뒤에 있다고 주장하는 JEDP 소스의 진행과 일치합니다.

역사성에 미치는 영향

이제 기억하세요. 이러한 출처는 상상 속의 것입니다. 그가 J, ED, P 라고 명명한 이러한 소스의 존재에 대한 문서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 따라서 그것은 가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꽤 잘 확립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류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가설입니다. 현대 장학금 또는 Wellhausen 시대 이후. 나는 이 수업에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론에 들어가서 요점을 논하고 반박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약 서문에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기 구약성서의 역사에 대한 이론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 그것이 하는 일은 구약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매우 낮은 관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 때문에 역사적 자료에 포함된 노골적인 조작은 아니더라도 많은 왜곡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벨하우젠의 사임

이제 가장 초기의 자료는 다윗 시대(기원전 1000년)와 모세 시대(기원전 1400년경) 이후입니다. 벨하우젠의 출처는 모세 시대로부터 최소 600년 후의 것이며 오경의 최종 편집은 모세 이후 약 1000년 후인 포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벨하우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관심은 구약의 메시지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스라엘 종교 발전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들의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진화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벨하우젠이 독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라는 곳에 있는 대학의 신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사람들을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리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문헌 아래에 언급되어 있는 이 작은 책의 2페이지, 네 번째 항목에는 Walter Zimmerli, *The Law and the Prophets*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22페이지에서 벨하우젠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72년에 그는 그라이프스발트의 신학 교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라이프스발트에서 보낸 10년 동안 그는 구약성서의 문학비평에 관한 결정적인 연구를 집필했습니다. 1882년에 그는 신학부 교수직을 사임했다. 그가 사임을 제출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는 이 위대한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인상적인 증언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데 관심이 있어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학 교수가 동시에 개신교 교회에서 봉사할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나는 이 실제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학교수직이 내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사임서에 나온 말이다. 그래서 Zimmerli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따라 Wellhausen은 양심상의 이유로 신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의 Halle에서 셈어를 담당하는 특별 교수로 임명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문학 평론가로서의 엄청난 명성 때문에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Wellhausen이 문제를 보았다고 생각하며 Zimmerli가 사임하면서 어느 정도 진실성을 보였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학교에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나 종교대학원의 많은 교수들이 독일로 가서 벨하우젠의 학생들 밑에서 공부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돌아가 영속한다는 점이다. 신학 학교의 맥락에서 아이디어. 그것이 초래한 것은 이 나라의 많은 주요 교단과 신학교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벨하우젠의 사임과 그의 사상 채택을 따랐다면 미국 교회 현장은 훨씬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임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진화 결과의 역사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약성서의 메시지는 상실되었고, 진화론적 기반에서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실제로 벨하우젠 관점에서 당신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구약성서에 접근하는 종교의 역사입니다.

B. 형식비평의 부상

형식 비평에 대한 일반 논평

개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판적 견해 A. “Julius Wellhausen” 과 B. “양식 비평의 부상” 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부제목이 있습니다. 1. “Hermann Gunkel에서”이고 2. “Gerhard von Rad” 입니다. 첫째, 형식 비평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벨하우젠의 시대 이래로 그의 다큐멘터리나 구약성서 문헌에 대한 자료 가설이 많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발한 기본 논제인 JEDP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벨하우젠은 이제 구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벨하우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Wellahusen의 이론적 기반 위에 많은 발전이 쌓여왔습니다 . 따라서 모세 오경을 J, E, D, P라는 라벨이 붙은 출처로 나누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 기본

순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 위해 현대 문학을 아주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 상황이 그렇습니다.

벨하우젠 이후 구약성서 비평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형식비평의 발전일 것이다. 형식 비평은 다큐멘터리 가설에 추가적인 차원을 제공합니다 .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해요. 형식 비평의 경우,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Wellhausen의 JEDP 이론에 대한 소스 분석을 받아들입니다. 형식비평은 그 어떤 것도 뒤집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 그 소스 분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본 문서 뒤에 숨겨진 구전 전통

그러나 양식비평의 사상은 문서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던 구비전통을 문서 이면에 침투시키는 것이다. 즉,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J 또는 여호와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리하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침내 서면 형식으로 구체화된 구전 전통에서 J 뒤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J 문서에서 . 이제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헤르만 궁켈(1862-1932)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은 구약성서 문헌 분석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1. 당신의

시트에 있는 “양식 비평” 아래에 있습니다. Hermann Gunkel은 1862년부터 1932년까지 살았습니다. 1844년부터 1918년까지의 Wellhausen과 비교하면 많이 겹치지만 Gunkel은 Wellhausen의 젊은 동시대 사람이고 그는 우리를 1932년까지 데려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대 근동인인 William Foxwell Albright 학자여, 그 이름이 당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수년 동안 가르쳤으며 지금은 사망했습니다. 그는 매우 영향력 있고 다소 보수적인 미국 학자이자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군켈에 대해 “그는 현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브라이트는 “성경 자료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 그 성격과 목적을 묘사하는 그의 방법론은 현대 성경 연구의 주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Gunkel의 영향력에 대한 한 저명한 사람의 평가일 뿐입니다. 그의 방법론은 현대 성경 연구의 주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Gunkel의 용어: Gattung /Genre, Sitz im Leben, Formgeschichte

Gunkel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성경 연구에 몇 가지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것들을 주겠습니다. 이는 독일어 용어이지만 기술 문헌을 읽으면 아마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어로 ‘

문학적 유형'을 의미하는 'gattung'입니다. 문학 유형에 대한 프랑스어 용어는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연구에서 읽을 때 용어는 때로는 "gattung"이고 때로는 "장르"이지만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 이야기, 예언서 등과 같은 특정 문학적 유형입니다. Gunkel의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용어는 잠시 후에 독일어 표현인 Sitz im leben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인생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용어는 formgeschichte입니다. 이제 그것은 한 단어입니다. "form"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form"이고 "geschichte"는 "history"입니다. 독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독일어는 종종 단어를 연결하여 더 긴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태의 역사"이다.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형식비평의 개념은 문학 문서 J, E, D, P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선행하는 구전 전통을 침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Gunkel이 느낀 것은 J, E, D, P라는 각 문서 내에서 개별 스토리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통에 따라 그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각각의 작은 이야기 단위로 그것이 어떤 문학적 유형을 나타내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삶의 상황인 Sitz im Leben이 그 문학적 유형을 만들어낼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Sitz im Leben이 이러한 문학적 유형을 낳게 될까요? 이 과정은 형태의 역사, 문학적

형태인 formgeschichte 였습니다. 그래서 Gunkel이 원했던 것은 문서 뒤에 숨어서 소스 문서(JEDP)의 출처인 영향과 설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식 비평 방법론

이제 Gunkel의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중 하나는 Gunkel이 Wellhausen보다 하는 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Wellhausen이 인식하지 못한 이러한 JEDP 문서의 상당 부분이 오래되었음을 인식합니다. 즉, 벨하우젠은 이 문서들을 저자, J 저자, E 저자, D 저자 등의 서면 창작물로 받아들인 다음 이를 다시 고대로 투영한 반면, Gunkel은 J가 A 저자의 최종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원래 구전 형태로 전통을 최종적으로 서면 형태로 전달하는 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Gunkel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문서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문서 자체의 최종 서면 형식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인식입니다.

궁켈과 연대기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Wellhausen에는 해당 타임라인이 있으며 J 작가는 950~850, E 작가는 850~750 등입니다. 나는 Gunkel을 통해 다큐멘터리 가설에 추가적인 차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타임라인인 출애굽기, 다윗(1000), 721, 586, 에스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 그는 기록된 전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동질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배경에서 왔으며 각 그룹이 구전 전통을 가져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 시대쯤에 그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다음 구전 전통 중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특정 전통을 J 문서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E 문서로 만드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D로 이어지는 별도의 전통 라인과 P로 이어지는 별도의 트랙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이것을 일정 기간에 걸쳐 확장하여 점진적으로 J 문서인 E가 형성되고 그 후에 다시 다음을 얻습니다. 기원전 621년경 J, E를 결합한 편집자 그동안 D 문서가 공식화되었고 P 문서와 마침내 JE, D, P 세 개가 모두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타임라인 대신 각 문서가 다른 문서와 융합되기 전에 고유한 기록을 갖는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술에서 작문으로

구두로 전달된 이러한 이야기 중 일부는 글로 기록되었을 수 있으며 당시에는 별도의 이야기 단위로 서면 형식으로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토리 유닛이 많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그의 이론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유닛은 일종의 순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지만 완료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스토리 단위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야기의 스토리 시퀀스와 같이 일련의 스토리 단위로 함께 연결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론에 따르면 원래는 상당히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동일한 이름 아래에 포함되어 서면 문서나 출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이야기를 수정하고, 서로 맞추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P에 대해 말하자면, 기원전 450년에 작업할 선행 자료 없이 앉아 있던 P 작가가 없습니다.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교수님은 네덜란드 표현을 사용했는데, 제가 여기서 번역한 바는 "그의 엄지 손가락으로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뿐입니다."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런 일을 하는 작가는 없습니다. 선행 전통을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가 있고, 그 전통 각각은 그 자체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통 에서 *Sitz im Leben* 까지

그러나 Gunkel의 이론으로 돌아가서 그는 이야기 단위를 분리하여 특정 문학 유형, 즉 *gattung* 또는 장르로 분류할 수 있다면 삶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 유형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이론화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몇 분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Wellhausen보다 Gunkel의 소재가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익

다른 하나는 문학적 유형과 특정 문학적 유형을 생산하는 상황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추상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디어로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대 문학에는 글쓰기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보를 교과서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문학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애 편지와 비교하고, 그것을 광고와 비교하고, 외교 성명 과 비교한다면 , 모든 형태의 글쓰기에서 문학적 스타일은 상당히 다릅니다. 연애 편지, 광고 브로셔 등을 만드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글을 보고 '아, 이게 이런 장르의 글이구나,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로서 그것에 대한 특정 정당성이 있으며 문학적 분석에서는 물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Gunkel, 특히 그의 많은 추종자들에게 그가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학을 생산하는 삶의 상황에 대한 가설적이고 상상적인 종류의 재구성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매우 자의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비평 구별

고등비평과 달리 하급비평은 본문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리스어 신약성서나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사본을 얻게 되는데, 좋은 사본, 즉 비평판이 있다면 각 사본에는 한 사본과 다른 사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 이를 다양한 사본에서 발견된 특정 차이를 야기한 전송 과정에서 원본 텍스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방법과 비교합니다. 그것은 더 낮은 비판입니다. 특정 범위의 원고에서 원본 텍스트를 확립하기 위해 다시 작업합니다. 반면에 고등 비평은 저자와 저자 날짜에 관한 분석 유형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비판입니다. 비판의 두 흐름: 더 높은 것과 더 낮은 것. 고등비평은 그 자체로 경멸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천과 영향력이 대체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문헌을 조사하고 장소, 시간, 저자 및 배경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고등 비평을 위한 매우 실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비판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Gunkel의 신화 및 전설 스토리 유닛 및 Sitz im Leben

항목은 HF Hahn, *The Old Testament in Modern Research*의 글입니다. 나는 HF 한의 4장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책은 아주 유용한 책인 현대 연구의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세기의 구약성서 연구를 요약하고 4장은 형식 비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Hahn은 이렇게 말합니다. “Gunkel은 원시인의 문학적 천재성이 사물의 기원에 관한 신화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신화에서는 신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전설에서는 인간의 민간 영웅에 대한 공적이 등장합니다. 전설에서는 남자가 주연을 맡는다.” 그래서 Gunkel은 신화와 전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이런 종류의 대중적인 전통의 초기 예를 찾기 위해 창세기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중적인 전설이 그 성격상 확장된 서술보다는 개별적인 이야기의 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하여 창세기의 서술을 분리된 문학적 단위로 축소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형태로 기록되기 훨씬 전에 암송과 노래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에 포함된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를 이야기 주기로 그룹화하는 것조차도 Gunkel의 견해였으며 문학 이전 단계에서 처음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야기 단위를 분해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다음,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삶의 어떤 상황(*sitz im leben*)이 그것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설과 역사의 관계

이제 궁켈에게 창세기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전설(The Legends of Genesis)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창세기는 전설이지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도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죠. Gunkel은 이것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창세기 전설 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설과 거짓말을 무의미하게 혼동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구약에 전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의 특별한 형태이다. 그토록 다양한 시를 사용했던 구약 종교의 고상한 정신이 왜 이런 형식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까? 이스라엘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특히 시와 시적 서술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적 서술이 산문보다 훨씬 더 자격이 있어 종교 사상의 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열왕기서보다 더 종교적인 책이다.” 이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가 시로 분류한 전설이며 그것이 산문이나 역사보다 종교적 사상을 전달하는 데 더 나은 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창세기가 그가 역사라고 분류한 열왕기보다 더 종교적인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창세기 이야기의 역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뒤인 3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사도들이 이 기록을 시가 아닌 사실로 여겼음이 분명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아시나요? “그들이 그랬다고 가정해 보세요. 신약성서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 예외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그 시대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성서의 문학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약성서를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이야기의 성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언. 그는 그것이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 시대의 아이들일 뿐입니다. 당시 그들은 이것이 역사라고 생각했고 그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빨리 일축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설과 역사를 구별하는 여러 기준을 열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적적인 요소를 선형적으로 삭제

그 기준을 모두 다루지는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는 “전설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믿을 수 없는 일을 자주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현대 역사가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데 아무리 조심스럽다 해도, 예를 들어 동물, 뱀, 암나귀는 말을 하지 않으며 결코 말한 적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불멸이나 지식을 주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인간은 육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창세기 14장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318명의 남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군대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삽화를 사용하는데, 둘 다 허수아비이며, 기적을 무시하고 창세기의 자료를 전설과 역사로부터 분리하는 기준으로 신뢰성을 확립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역사적 자료를 평가할 때 신뢰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 우리는 신뢰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신뢰성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해. 그러나 성경의 서술에 관해서는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가정함으로써 그것이 전설인지 역사인지 결정할 수 없으며 그것이 Gunkel의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그것은 피오리 (piori) 입니다 . 그것은 그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글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적을 담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것이 그의 추론 방식이고 그의 출발점은 그가 틀린 곳입니다. 출발점은 유추의 원리, 역사적 유추의 원리에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기록으로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경 자료를 다루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처음부터 신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그 자료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둘은 완전히 같음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거기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뒤섞여 있는 역사의 요소들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요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에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종교적 메시지나 교훈이었습니다. 이솝 우화와 비슷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로서의 전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전설이 시라는 것에 대해 더 이야기합니다. 그는 “중요한 점은 내러티브의 시적 어조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주장하는 역사는 본질적으로 산문인 반면, 전설은 본질적으로 시입니다. 그 목표는 기쁘게 하고,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러티브를

정당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미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적대적이거나 심지어 회의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구하고, 사랑스럽게, 그의 재료의 성격, 마음과 감정을 소유한 사람은 예를 들어 이삭의 희생의 경우 중요한 문제는 특정 역사적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Gunkel의 의견에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는 것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희생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버지의 가슴 아픈 슬픔과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이 고통스러운 시련에서 풀어줄 때. 그리고 이 오래된 전설에서 특유의 시적 매력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이야기를 역사 속 산문으로 취급할 때만 이 이야기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야만인(경건한 야만인이 있기 때문)에 짜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걸 잡았나요? 여기서 Gunkel에 따르면, 창세기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산문 역사로 다룬다면 당신은 야만인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의 시를 보는 데 필요한 미적 특성이 없습니다.

병인 전설로서의 창세기

이 책의 두 번째 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다양한 전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몇 가지 삽화만 더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 용어가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궁켈은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설을 병인학적 전설로 간주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병인학은 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질병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창세기의 전설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현재 관찰되는 것과 같은 이유를 전설이 설명한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Gunkel에 따르면 병인 전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그가 이야기 단위를 분리하고 문학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병인 전설의 일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학적이다. 그는 “지파 간의 관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왜 그 형제들의 종이 되었는가? 야벳의 영토가 그토록 확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롯 자손이 척박한 동방에 거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롯의 자손이 이곳에 살았고, 야벳의 영토가 넓었다는 등등. 왜 그럴까요? 르우벤이 어떻게 장자권을 잃었습니까? 왜 가인은 불안한 도망자 주위를 돌아다녀야

합니까? 브엘세바는 왜 우리의 것이요 그랄 자손의 것이 아니냐? 이스마엘은 왜 이 영토만 가지고 베두인족이 되었는가? 글썄요, 그는 이야기가 사물을 설명하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화했으며 그러한 이야기는 민족적 전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왜 일부 인종 집단이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허구이다. 그는 “부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민족학 전설은 실제 사건의 전통이 남아 있는 역사적 전설과 구별하기가 물론 어렵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민족학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와 그들이 왜 그곳에 살았는지, 왜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허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설명이 지금 우리에게 유치해 보이고, 옛날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시적 전설의 심오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원 전설의 예

어원 전설. 그것은 이름, 인종, 산, 우물, 성소, 도시의 유래와 의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몇 가지 대중적인 어원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이것을 독일어로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번역되었고 그는 독일어 삽화를 사용했지만 그 다음에는 영어 삽화도 몇 개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대중적인 어원이 있다. 뉴햄프셔와 버몬트

사이,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을 가로질러 흐르는 노블 강이 처음 두 주를 '연결' 하고 뒤의 두 주를 '절단'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코네티컷 강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입니까?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야기 중 일부가 비유적으로 같은 종류의 허구적인 민간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맨하탄 섬은 초기 버거가 착용했던 네덜란드 모자 크기에 충격을 받은 야만인이 'Man hat on!' 이라고 외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비슷한 전설이 많이 나옵니다." 바벨이라는 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사실, 즉 바벨(창 11:9)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장자권을 빼앗긴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로 해석됩니다. 등등.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가 "맨해튼"만큼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역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역사로 읽는다면 당신은 야만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미학적 시적 통찰력이 없습니다.

의식 전설

의식 전설. 그는 종교 의식의 규정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유월절에 아버지가 온갖 이상한 풍습을 행하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고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비슷한 지시가 요단강의 열두 돌과 관련하여 주어집니다(수 4:6). 아버지는 요단강을 통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그러한 전설이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유월절 이야기가 전해지며 현대의 의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할례와 안식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일의 실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혹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화와 전설이 개입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신성한 관습을 설명합니다. 오래 전에 이 의식이 매우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적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질학적 전설

지질학적 전설. 우리는 그것으로 그만 두겠습니다. 지역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두려운 사막이 있는 사해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지역은

주민들의 끔찍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 여자 모양의 소금기둥은 어디서 오는가? 그 여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탐지하려 하여 벌을 받아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지질학적 전설이다.

장엄한 이야기지만 실제 역사를 무시함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Gunke1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이다. 그는 당신의 참고문헌에 나열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Gunke1의 영어로 번역된 유일한 다른 책입니다. 흥미로운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Remains of the Old Testament?* 이 메시지에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 20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이야기에서 살인을 기본 범죄로 규정하는 힘, 야곱 이야기의 매력, 형제적 시기심과 형제적 사랑, 믿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압도적인 섭리, 죽음 이후에도 무덤에서 지속되는 과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롯의 짧은 서사시의 매력, 창조 이야기의 장엄함, 낙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순진하지만 심오함.” 그는 “종교적 사상이 여전히 가치 있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역사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가 이 이야기들에서 얻은 것은 그가 이 이야기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느꼈던 장엄한 종교적 개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의 통치와 섭리, 선과 악에 대한 신의 보응, 종교적 감정 등등.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치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이야기 속에 전달된 종교적 개념과 감정. 그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실제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부터 Gunkel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인 Von Rad로 넘어가겠습니다.

Sarah Emmons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편집자: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다시 해설함